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4. 11. / (총 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영	전 화	044-202-3575 044-202-3808	
	담당자	문 달 해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노 혜 원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담당자	이 승 훈			
법정부대책지원본부 긴급대응팀	팀 장	오 준 혁	전 화	044-205-6520 044-205-6521	
	담당자	조 총 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 장	이 중 규	전 화	044-202-2730 044-202-2745	
	담당자	이 선 식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검사시설지원팀	팀 장	최 신 광	전 화	044-202-3731 044-202-3833	
	담당자	유 규 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주말 동안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문제점 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개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주문하였다.
- 또한, 전자손목밴드뿐만 아니라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 고도화, 불시점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자가격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하였다.

## 1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자가격리자 수(누적) : 32,898(4.3.) → 41,723명(4.5.) → 49,064(4.8.) → 54,583명(4.9.)

○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과 함께,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하였으며,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이다.

○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 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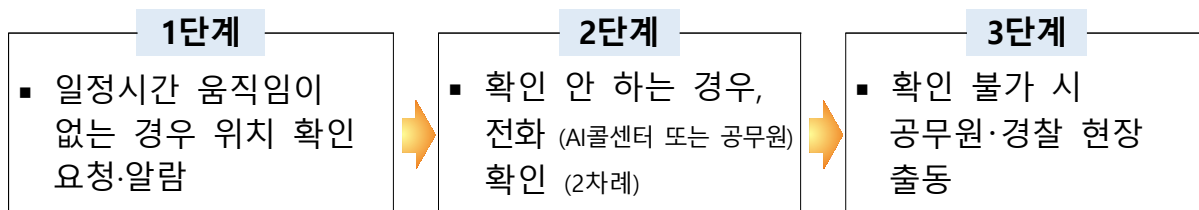
○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하여 운영한다.

-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 예) 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08~21시) 중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여 운영한다.

-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 (당초) 10시, 15시(2회) → (개선) 10시, 20시(2회), 추가 무작위 1회

-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 2 전화상담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 개선

- ☐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2.24일~)

- ☐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 산정 불가 →  
(개선) 진찰료 + 시간·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 +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가능

- ☐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원료가 부담되어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

- ☐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격리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인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일평균 130여 명(4월1일~4월10일간)이 입국하고 있다.

□ 4월 10일 21시 기준 임시생활시설은 총 10개소, 1,665실을 운영 중이며, 1,360명(객실 대비 81.7%)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 임시생활시설 2개소를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 라마다 앙코르 김포 호텔(4.11),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4.12)

○ 4월 13일 0시부터(현지 출발시각 기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 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상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중요일부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병 유행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오관을 거둬들인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악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 운운하며 자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에게 고마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의 수당 논란은 의료진에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부처 임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들은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많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자의 목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라.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집단의 의료진과 노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코트·보화상 등 보 로 품을 기부하겠다는 의뢰가 마스코트라고 “떨어뜨 리고”라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시에 알기 는 사 보화상 이외에 대신 수송수송을 맡겼는데, 정부는 보 의뢰가 들어와 집단언론이 발생하면 소 해산 선 친구를 보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페럼은 승 승 17세 소년과 함께 2019.10.19 양성민을 한 차례 (그 말 잃어 버리는 세상) 나옴 친구 잘못했다. 보 변형 기사인 (페럼을 지시했다) 철학한 일도 있 었고, 도주자는 뒷날경정 폭박을 깨려 들어가 되겠는가. 대의사범들은 “나서 달리고 오해하다 가 사장이 어린이들에게 두대 권하러 가는 모습인 일 전래의 비정당들에게 부를 씌운 무능한 조선 관 리를 연상하게”고 지적했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똑같은 현상을 지키는 의료인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진한·안상에 격리된 고인들이 받았던 ‘청와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간 ‘청와대 밥차’의 의료진에 답도했다는 이야기는 들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이학영 칼럼



상임논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국민은 ‘해외출입 간헐자택’ 비상

표 10-9. 임의, 임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하기에도 힘입고 의외로도 지쳤다.” 백영권 이사장은 “다른 나라에는 이미 한국을 막았으니 상호주의에 입각해 금지하라는 것, 외국인이 지갑없는 의류의 국내로 들어오라고 한다”는 말로, 예외의 또 다른 기본인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를 정부와 여러 민간인 의사 앞에서 듣게 된 것, 이게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illegible]

한 미국에 대해서까지 일국적임을 조치를 하기로 한 이유다.

실활이 이면에도 한국 정부만 일국적 한 조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갈릴릴 차 단' 요구가 빚발치자 동원한 조치가 '모 든 해외 일국자 2주간 의무귀국에 결산' 하는 일국적화 방안이 아니라, 한미 양국은 영국인과 독일인이 가진 만민을 받은 상태에서 이곳을 들리고 있는 것으로 외국 연 관에서도 어필을 드리고 있다. 무엇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newsfromusa.com

이제 우리는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키자면 과학과 기술의 개발이 우선이다. 과학 분야에 외국에서 유망한 인재가 오는 것은 현재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외국에서 유망한 인재가 오는 것은 그들이 일본에 없었더라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일본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일본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 붙임2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